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7. 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이라크, ISIS의 영국 공격 계획 적발

- 6.29 언론은 이라크군이 사막 은신처에 숨어있던 ISIS 대원 수십명을 사살했으며, ISIS가 영국의 극단주의자들과 접촉해 영국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적발했다고 보도

※ 이라크군은 영국에 모든 정보를 제공했으며, 서방 정보기관은 테러 차단 노력 중

미 주

○ 美, '말리 UN평화유지군 임무 중단 요청에 용병기업 개입' 주장

- 6.30 「존 커비」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말리 군부 정권의 요청으로 UN이 말리에서 평화유지군(MINUSMA) 임무를 종료하는 과정에 러시아 용병기업 '바그너 그룹' 수장 「프리고진」이 개입했다고 발표

※ 또한, 말리 정부가 '21년 후반부터 바그너 그룹에 2억달러(약2천600억원)를 지불했으나 테러 증가 등 치안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

○ 美 의회폭동 가담자, 「오바마」前 대통령 집 인근에서 체포

- 6.29 언론은 '21년 의회폭동과 관련해 수배자 명단에 올라있던 「타란토」(37)가 워싱턴DC 소재 「오바마」前 대통령 집 방향으로 뛰어가다 비밀경호국(SS)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보도

※ 同인의 승합차량 안에서 폭발물과 무기 등이 발견

○ 美, 워싱턴 DC에서 연쇄 폭발 테러 발생

- 7.4 언론은 워싱턴DC 경찰국이 지난 2일 새벽 04:30분경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워싱턴DC 상업지역 3곳에서 연쇄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여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

※ ① 04:30분 은행 ATM기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뒤 도주 ② 04:36분 인근 나이키 매장으로 이동 후 폭발물 투척 ③ 04:45 슈퍼마켓에 화염병 투척

아 · 태평양

○ 원자력안전위원회, 원전 지역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 구축

- 7.2 언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, 새울, 월성, 한울, 한빛 등 국내 5개 원전 지역 주변에서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퇴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도

※ 원전 부지로부터 3km 이내에서는 드론의 전원을 켜기만 해도 탐지 장비인 'RF스캐너'가 주파수를 탐지해 원전 상황실에 비행 여부와 위치를 확인

○ 파키스탄 싱크탱크, 상반기 自國 테러 사건현황 분석

- 7.3 언론은 파키스탄 분쟁안보연구소 보고서를 인용, '23년 상반기 테러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79% 증가(사망자는 33%↑)했으며, 특히 심각한 지역은 카이버팍툰과로 174건의 공격으로 인해 266명이 사망하고 46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

중 동

○ 인도, 뭄바이와 푸네지역 ISIS 동조자 4명 체포

- 7.3 언론은 인도 국가수사국(NIA)과 뭄바이 경찰 합동팀이 뭄바이와 푸네의 4개 지역을 급습하여 ISIS 동조자 4명을 구금하였으며, 이들은 ISIS 연계 혐의로 '21년부터 감시망에 포착된 자들이라고 보도

※ 합동팀은 휴대폰, 메모리카드 등 혐의가 있는 자료를 압수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아프리카, 무장괴한에 의한 중국인 피살 지속

- 7.4 언론은 콩고민주공화국 루알라바州에서 중국인 부부가 무장괴한 총격에 의해 살해되는 등 아프리카 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지속* 발생 중이며, 中 대사관도 위험한 現 상황을 인식하고 외출 자제 등을 권고했다고 보도

* 지난해 납치·살인에 이어, 올해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와카州에서 광산 습격(3.19, 사망 9)

필리핀 민다나오섬 연쇄 폭탄테러

- '09.7.4~7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다투피앙·줄로·코타바토·일리간 일대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, 어린이 포함 7명 사망·66명 부상



<테러 현장 사진>

- 필리핀군은 테러 배후로 모로이슬람해방전선(MILF), 아부샤아프(ASG), 제마 이슬라미야(JI) 등을 지목하였으나
- MILF는 “同 공격은 무자비한 자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, 정확한 배후를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한다”는 반박 성명을 발표
- 한편, 일부 야당의원들은 “同 테러는 '72년 「페르디난도 마르코스」 前 대통령의 계엄령 치하를 상기시키며, 국가를 비상사태에 놓고 계엄령을 부활시키려는 現정부의 책략과 무관치 않다”고 발표
- 이에, 필리핀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, 테러범에 대한 정보제공자에게 백만페소(약 2,300만원) 포상금 지급 계획 등을 발표

테러 상식

< 모로이슬람해방전선(MILF,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) >

- (목표) 필리핀 남부 지역에 이슬람 원리주의 독립국가 건설
- (핵심인물) 알 하지 무라드 이브라힘(의장)
- (활동시기) '78년 ~ '14년
- (활동지역)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, 술루제도, 팔라완 등
- (주요테러) '98.6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삼보앙가에서 기독교도 마을 공격(사상 26명), '00.5 마닐라 대형 쇼핑몰에 폭탄테러(사상 13명), '11.10 남부 민다나오에서 작전 중인 필리핀 정부군 공격(사망 41명)
- (최근동향) '14.3 MILF가 정부와 평화협상안을 타결, 무장투쟁을 사실상 중단하였으나, 과격파인 방사모로이슬람자유전사단(BIFF) 등이 MILF에서 분파하여 테러 지속

